전주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법인 · 단체 등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지원 예산 중 공모절차 의해 사업자 선정 지원

전주시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지방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전주시 예산 중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금 제도 이행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전주시에 근거를 두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온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지정돼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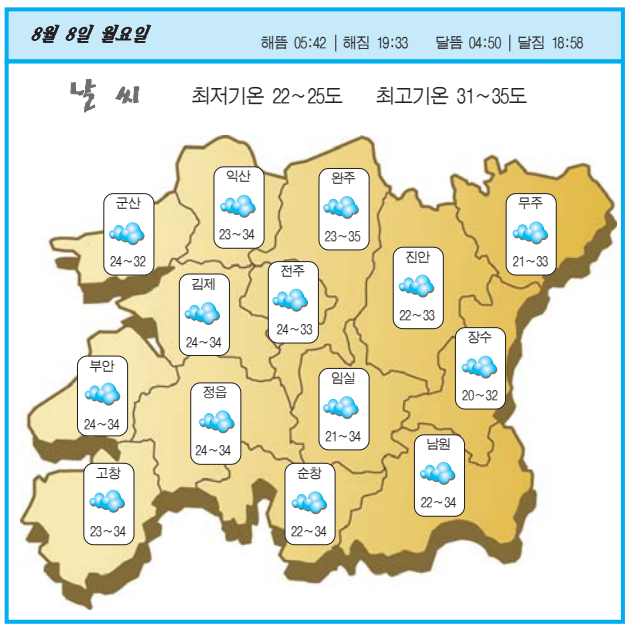
지원대상 사업은 운영비의 경우 법률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사업비의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어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에 대한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지난해 사업추진 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대상은 의회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개별통지된다.

지원 희망 단체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 · 공고'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폭염에도 공연 보러왔어요 전주 MBC가 주최하고 전주시가 후원하는 '2016 전주 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P)'이 지난 5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관객들이 입장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전주에는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다.



청년단체, 정부 청년수당 직권취소 반발

정부가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청년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지금 청년들에게는 문제 상황에서 견디고 재도약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과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직권 취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던 청년들에게 돌아온 것은 견고한 불신의 벽"이라며 "정부는 그간 실패해온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더 나은 개인이 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 '2020 서울 청년보장'은 서울 청년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정책"이라며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보건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직권 취소할 어떠한 명분과 권한도 없다"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강요하는 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전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시에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직권 취소 명령으로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 이미 지급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 대상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대법원에 복지부의 직권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내일이면 수능 100일…

입시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공부법은?

과목별 취약점 집중 공략… 컨디션 조절 필수

9일이면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그동안 마라톤을 뛰듯 수능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목표점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할 때다.

남은 100일간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학습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이재진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실장 등 입시 전문가들에게 공부법을 물어봤다.

◇과목별 취약 영역 집중 공략 필요

국어는 문학과 독서(비문학)의 경우 매일 꾸준히 수능 · 모의평가 기출 지문 3개 정도를 풀면서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신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지문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국어 점수를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라면 수능 직전까지 무리해서 공부량을 늘리기보다 기존에 공부했던 것을 복습하고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학은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때 틀린 문제의 해설지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키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또 맞힌 문제라 하더라도 풀이과정 중 오류가 있지 않은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완벽하게 소화해야 한다. 모의고사를 치를 때는 시험 시간 100분 중 70분은 아는 문제를 다 풀고 나머지 시간에 고난도 변별력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영어는 영역별로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 서너 시간씩 몰아서 학습하기보다 한 시간이라도 잘게 쪼개어 단어, 듣기, 독해를 골고루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상반기 모의평가를 통해 확인한 자주 틀리는 유형이나 고난도 유형을 따로 정리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상위권 · 중위권 · 하위권 학습 전략은?

상위권 학생이라면 문제풀이 감을 유지하며 수능날까지 감각의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중위권 학생은 취약점에 대한 분석 없이 문제를 많이 푸는데 집중해 비슷한 개념과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하위권 학생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개념정리부터 해야 한다.

◇수능 변수 '컨디션' 꼭 챙겨야

실전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생체리듬을 서서히 수능일에 맞추고,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은 필수다. 기상 후에는 몸이 완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이 몇 시간인지 파악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잠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9월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수험생들은 집중력이 상대적으로 흐트러질 수 있다. 수시 모집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거나 정시 지원을 준비하는 경우 어수선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갑자기 몰아치듯 공부하는 것보다는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진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평가실장은 "수시 준비와 수능 준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학습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전북 사립학교 교감 청렴도 교직원보다 낮아

전북지역 사립학교 교감의 청렴도가 다른 교직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장 등 고위공직자 2207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벌였는 데, 초등교장이 높고 사립학교 교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렴도 종합점수를 보면 공립초등 교장과 공립행정실장이 97.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 사립중고등학교 교감이 93.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공립 중고등학교장 96.6점 ▲공립유치원장 94.5점 ▲사립중고등학교장 94.7점 ▲교장/교감 승진대상자 97.5점 ▲공립중고등학교 교감 97.3점 등으로 조사됐다.

도 교육청은 청렴정책 일환으로 매년 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벌이고 있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조사기관이 온라인(이메일) 조사방법으로 진행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도 결과는 각 개인에게 통보해 자기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중임대상 학교장과 전문직의 청렴도 결과는 중임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